

개혁신당 “이재명 정부 11호 부동산 대책은 위법”… 행정소송 예고

정부가 통계조작으로 위법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가 통계조작으로 위법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이번 달 안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서울 동북·강북·중앙·금천, 경기 의왕·성남중원·수원 장안·팔달 등 8개 지역을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대표는 “도봉구, 강북구 등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개혁신당은 이를 의도적인 통계 배제로 규정했다. 천 대표는 “9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이미 10월 15일 발표됐다”며 “불리한 통계를 제외한 채 8월까지의 자료만 반영한 것은 ‘통계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취사선택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며 “이런 행정은 행정의

목적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기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0월 16일 공고 시점에는 이미 9월 통계가 존재했으므로 정부의 조치는 명백한 주택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 강북, 금천, 의왕 등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단 하루 만에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11호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이번 달 안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지정 해제 신청 및 거부 처분 취소소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대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조치는 법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경고했다.

천 대표는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을 짓밟는 위법한 행정은 끝내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통계로 장난치지 않고, 위법한 처분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바로잡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정화 기자

CJ제일제당, 올리브영과 손잡고 프로틴 전문 브랜드 키운다

CJ제일제당이 CJ올리브영과 함께 단백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단백하니’로 프로틴의 대중화에 앞장선다.

CJ제일제당은 ‘단백하니 단백질셰이크’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시그니처·초코·말차 등 총 3종으로,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이다.

‘단백하니’는 소비자의 단백질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설계를 통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브랜드다. 2030세대의 관심사가 웰니스 분야로 꾸준히 확장되는 추세에 따라 헬스 앤 웰니스(Health & Wellness) 카테고리 강화에 대한 CJ제일제당과 올리브영 양사 간 공감대 속에서 기획됐다. 여기에 ‘슬로우 라이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정희원 박사가 개발에 참여하며 지난 6월 첫 제품으로 ‘단백하니 프로틴바’를 선보였다.

‘단백하니 단백질셰이크’는 통곡물 파로를 넣어 고소하고 바삭

프로틴 대중화 위해 올리브영과 협업… 정희원 박사가 개발에 참여한 ‘단백하니’ 선보여

신제품 ‘단백질셰이크’ 3종, 출시 직후 11월 ‘올영픽’ 선정 및 푸드 카테고리 BEST 상품 등극



한 식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한 팩당 단백질 22g을 섭취할 수 있다. 반면, 당류는 한 팩당 2g으로 낮췄다.

통곡물 6곡 분말을 담아 고소한 ‘시그니처’와 진하고 달콤한 초코우유 맛의 ‘초코’, 최근 열풍인 ‘말차’ 등 세 가지 맛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 및 맛 품질 덕분에 ‘단백하니 단백질셰이크’는 11월 ‘올영픽(PICK)’에 선정됐으며 푸드 카테고리 BEST 상품으로 등극하는 등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중 ‘단백하니 프로틴바’ 2종(피넛버터·말차 초코)도 추가로 선보이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백하니 프로틴바’는 고대 작물 중 하나인 ‘파로’에 열과 압력을 가해 빵튀기처럼 부풀리는 퍼핑(Puffing) 공정을 적용해 고소하면서도 가볍고 바삭한 식감을 살렸다. 또한, 알룰로스 사용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단맛을 구현해냈다.
이현진 기자

수자원공사, AI 물산업 생태 육성으로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 새 판 주도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CES 2026에 동반 참가할 7개 기업이 최고혁신상 및 혁신상 수상 쾌거

AI,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한 K-물테크로 기후변화 시대 물관리 난제 해소에 도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내년 1월 개최될 CES 2026에 동반 참여할 국내 물기업 7곳이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지 시각 11월 5일 CES 주최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

(CTA)가 발표한 심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으로 CES 2026에 동반 참가 예정인 국내기업 7곳이 최고혁신상 1건과 혁신상 6건을 수상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문가 기술 자문 및 컨설팅 등으로

지원해 온 국내기업 중 최초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이 탄생하며 대한민국 물테크의 글로벌 혁신성을 입증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수질 측정 기술을 개발한 ‘돛돛이’가 최고혁신상을 수상하였고, ▲ 광학 기반 스마트 수질 측정기를 개발한 ‘리바이오’ ▲ 정수장 등 시설물 점검을 위한 AI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인 ‘모빌리오’ ▲ 인공지능 누수 탐지 시스템의 ‘스텔라비전’ ▲ 광촉매·고분자 전해질 기반 수생태 복원 기술의 ‘젠스’ ▲ 태양광 기반 그린수소 생산 기술의 ‘하이랩’ ▲ 나노버블을 활용한 소독부산물 제거 기술의 ‘화우나노텍’이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혁신상을 휩쓴 K-물테크의 가장 큰 특징은 AI,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해 육안 확인

이나 예측이 어려운 물관리를 혁신했다는 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 이후 CES에 지속 참가하고 있다.

혁신 파트너 기업들의 글로벌 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서이다. 지난 1월 열린 CES 2025에서는 혁신상 3건 수상과 함께 약 510억 원 규모의 수출·투자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성과는 물 분야 AI 전환을 한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AI 3대 강국 도약에 K-물테크가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혁신 물기업들을 위한 수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물테크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 국민행복 실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시 기반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 안전 최우선의 고속도로 실현 등에 상호 협력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지웅)은 5일(수) ‘국민 행복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신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해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겼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도로교통 서비스 제공 △안전 최우선의 고속도로 실현 △지속 가능한 상

생·협력 생태계 구축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등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사의 핵심 가치, 경영방향을 바탕으로 도출한 네 가지 추진 방향을 통해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대표 공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웅 한국도로공사 노조위원장은 “이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터 곳곳에서 변화로 이어져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국민의 공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영진 기자

한전KDN, BIXPO 2025 ‘에너지 ICT 대전환’ 솔루션

에너지ICT 기술력 기반한 에너지산업 선도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 구축 선도 의지 강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빛가람 국제 전력 기술 엑스포(BIXPO) 2025’에 참가해 에너지ICT 핵심 솔루션을 선보인다.

BIXPO(Bitgaram International Electric Power Technology Expo)는 한전이 주최하는 세계적인 전력기술 박람회로 에너지 산업의 혁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올해는 ‘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LS, HD현대일렉트릭 등 국내외 에너지 관련 주요 업체들이 참가한다.

한전KDN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전력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 5종 ▲K-H2 ECP(EMS Cloud Platform, 수소도시 플랫폼) ▲E:모음(KDN-VPP 플랫폼)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 ▲배전자동화용 단말장치(FRTU) ▲

SG(Smart Grid) 기기 보안인증시스템을 출품했다.

한전KDN의 ‘K-H2 ECP’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전주기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디지털트윈 기반의 모니터링 기술과 증강현실(AR)을 접목하여 시설 상태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다.

해당 시스템은 전주·완주, 안산 수소시범도시에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1·2기 수소 도시인 보령, 당진, 부안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전국 단위 확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E:모음’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소규모 발전소를 하나의 가상발전소(VPP)처럼 통합·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통해 전력 수요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분산된 에너지자원을 최적의 효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로 수요자와 발전사업자 간 효율적인 전력거래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는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품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선로 불평형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설치비용이 낮고 유지비가 낮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배전 자동화용 단말장치(FRTU)’는 배전선로 데이터 취득과 개폐기 감시·제어를 통한 원격운영의 핵심 장비로 기존 대비 30% 향상된 데이터 전송속도와 보안 기능을 갖춘 배전자동화 시스템 현장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기반 인프라 보안을 위한 ‘SG 기기 보안인증시스템’은 전력기기(AMI, 배전, EV 등)별 고유 인증서를 부여해 해킹이나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으로 2018년 한전 FEP 서버와 DCU, 모뎀 등에 도입한 이후 EV충전기, AMR설비 등으로 확대해왔으며 2022년 고압 AMR 설비와 스마트 계량기 보안인증 연계를 그 성능을 검증받고 있는 시스템이다.

한전KDN은 이번 BIXPO 참가를 통해 기술 홍보를 넘어 국민과 산업계에 자사의 에너지ICT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형 전시’를 구현하고자 전시관 내 기술 세미나와 SNS 참여 이벤트,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통한 관람객 의견 수렴으로 향후 제품 개선과 서비스 기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진 기자

하이트진로 ‘테라’,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

디즈니+와 ‘테라’의 만남… 모델 지창욱 시너지 극대화 위해 기획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와 협업한 ‘테라’ 한정판 패키지를 6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테라 모델 지창욱이 주연으로 나선 작품의 인연으로 브랜드와 모델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테라’ ‘조각도시’ 패키지 한정판은 ▲유형용 500mL ▲가정용 453mL 8캔 등 2종으로 출시되며, 6일부터 수도권 유통채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 속 주연 배우 지창욱의 강렬한 이미지를 담아 도시

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11월 26일까지 출시 기념 대형마트 소비자 이벤트도 진행한다. 테라 제품 5천 원 이상 구매 고객 중 250명을 추첨해 ‘디즈니+ 스탠다드 3개월 이용권’을 증정, 경품 응모는 영수증 내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각도시’는 평범한 삶을 살던 태종(지창욱)이 어느 날 억울하게 흉악한 범죄에 휘말려 감옥에 가게 되고, 모든 것은 요한(도경)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를 향한 복수를 실행하는 액션 드라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작품의 화제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의 팬과 MZ세대 소비자를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